

젠슨 황 “LG와 로보틱스·미래 데이터센터 아키텍처 설계”

구광모 회장과 최고경영진 회의
 냉각, 전력공급 등 첨단기술 필요
 엔비디아 AI 생태계 청사진과 일치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젠슨 황 미국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퍼지컬 AI와 AI 인프라(AIDC), 모빌리티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사는 로보틱스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차세대 AI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AI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와 엔비디아는 8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구 회장과 황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경영진 회의(TMM)를 개최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5일 젠슨 황 CEO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났던 이어 성사된 것으로, 양사는 퍼지컬 AI와 AI 인프라(AIDC),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젠슨 황 CEO는 로보틱스와 AI 인프라를 양사 협력의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8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야 중 하나는 로보틱스와 전자·기계 시스템의 융합”이라며 “LG와 함께 미래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데이터센터는 수백 메가와트(MW) 규모지만 미래 데이터센터는 기

가와트(GW) 규모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냉각과 전력 공급, 데이터센터 설계·건설 전반에 걸친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는 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미래 데이

터센터 아키텍처를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도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났다. 젠슨 황 CEO는 “AI 산업과 AI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AI는 실제로 유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이 됐다”며 “모든 AI 기업이 매우 빠르게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AI 팩토리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엔비디아의 미래 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AI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양사는 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엔비디아의 로봇 개발 플랫폼인 아이작(Isaac), 그루트(GROOT), 코스모스(Cosmos)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와 물류 로봇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LG 이노텍은 엔비디아 AI 칩에 최적화된 센

싱 모듈과 광학 부품 개발에 나서고, LG CNS는 제조·물류 현장용 AI 로봇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한다.

AI 인프라 분야에서는 LG전자가 냉각수 분배장치(CDU), 콜드플레이트 등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협력을 확대한다. LG유플러스와 LG CNS는 엔비디아의 DSX AI 팩토리 레퍼런스 디자인을 적용한 차세대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한다.

LG AI연구원도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블랙웰(Blackwell)과 AI 개발 플랫폼 네모(NeMo) 등을 활용해 자체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의 성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구 회장은 “엔비디아가 그리는 AI 생태계의 청사진은 고객의 일상과 글로벌 산업 현장에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LG의 미래 모습과 일치한다”며 “양사가 가진 차별화된 역량을 결합해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HBM 공급물량·장기계약 ‘주목’... 협력의제 확대 발판

젠슨 황, 방한 마지막 일정

전영현 부회장과 비공개 회동
 직후 브리핑서 구체적 성과 기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나흘간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이날 오전 SK하이닉스와 메모리 장기공급계약을 맺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는 어떤 협력 카드를 꺼냈을 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전 부회장 등 삼성전자 반도체 경영진과

비공개로 회동했다. SK와 달리 회동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삼성은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어서 구체적 성과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엔비디아는 이날 오전 SK하이닉스와 2년 이상의 메모리 장기공급계약(LTA)을 맺었다. 황 CEO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동 브리핑을 열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가장 큰 메모리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규모와 기간을 공개 석상에서 못 박은 SK와 달리, 삼성전자와는 비

공개 회동으로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것은 협력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베라 루빈용 6세대 HBM(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하며 엔비디아 공급망에 가장 먼저 진입했다. 핀당 전송속도 11.7Gbps로 엔비디아 요구 기준을 웃도는 성능을 구현했다. SK하이닉스가 이날 장기계약으로 공급을 확정할 만큼, 삼성전자와도 물량 확대나 장기계약으로 이어질지가 이번 회동의 관심사다.

협력 범위가 메모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삼성을 주목하게 하는 대목이다. 삼성

전자는 HBM 공급에 더해 AI 칩 위탁 생산까지 맡으며 엔비디아와의 협력 폭을 넓히고 있다.

황 CEO는 앞서 삼성전자가 AI 추론용 반도체 그록3 언어처리장치(LPU)를 생산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함께 갖춘 만큼, 삼성전자는 HBM을 넘어선 협력까지 논의할 수 있다.

차세대 제품 주도권도 이번 회동에 걸린 과제다. 삼성전자는 HBM4에 이어 7세대 HBM4E를 올 하반기 샘플 출하할 계획으로, HBM4에서 확보한 흐름을 다

음 세대까지 잇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황 CEO가 출국 직전 삼성전자를 따로 찾은 것도 이런 협력 확대 가능성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황 CEO는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는 몇 주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따로 만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회동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HBM 사업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치킨·평양냉면·삼계탕까지... 외식·유통가 ‘젠슨 황 특수’

황 CEO, 우래옥·토속촌 등 방문
 세븐일레븐 ‘HBM칩’ 매출 766% ↑
 BBQ 방문 매장도 주말 매출 20% ↑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이끄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기간 동안 광복 행보를 이어가며 ‘K-푸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에 소주, K-치킨을 즐긴 데 이어 평양냉면과 삼계탕까지 섭렵하면서 그가 거쳐 간 외식·유통업계가 전례 없는 ‘젠슨 황 특수’를 누리고 있다.

황 CEO는 지난 7일 서울 을지로의 유명 평양냉면 노포인 ‘우래옥’을 찾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전날인 6일에는 서울 남대문시장 칼국수골목과 종로구의 유명 삼계탕 전문점 ‘토속촌’을 잇달아 방문했다. 황 CEO는 토속촌에서 삼계탕과 통닭, 파전 등을 주문해 일행과 나눠 먹으며 한국의 전통인삼주를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의 K-푸드 사랑은 입국 첫날부터 뜨거웠다. 지난 5일 입국 당시 취재진에게 “한국식 바비큐와 치킨이 그리웠다.

삼계탕도 최고며 전부 다 맛있다”고 밝힌 그는, 당일 저녁 곧바로 서울 마포구 흥대인근 고깃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 회 의장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및 세계 거두들과 만나 삼겹살에 소주를 즐겼다.

이 자리에서 황 CEO와 총수들은 하이 트진로의 ‘태라’와 ‘참이슬’을 섞은 소맥조 합인 일명 ‘데슬라’와 OB맥주의 ‘카스’를 함께 마시며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갔다.

삼겹살로 1차를 마친 황 CEO 일행의 다음 행선지는 K-치킨의 대명사인 치킨 집이었다.

황 CEO 측이 치킨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즉석에서 결정된 2차 장소는 ‘B BBQ 흥대입구역점’이었다. 본사인 제너시스BBQ조차 사전에 방문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을 만큼 깜짝 방문이었다.

부인 로리 황 여사와 함께 테이블에 앉은 황 CEO는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이해진 의장 등과 함께 BBQ의 시그니처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 8마리와 생맥주, 카스 캔맥주, 그리고 BBQ의 자체 탄산음료인 ‘스파클링 레몬보이’ 등을 주문해 치맥 타임을 가졌다.

황 CEO가 지나간 자리는 즉각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며 유통가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이다. 황 CEO가 5일 일흥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자체브랜드(PB) 과자 ‘세븐셀렉트 허니바나나맛 HBM 칩스’는 황 CEO 방문 이후 일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무려 766% 급증했다. 함께 나눠준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와 팔도 ‘비락식혜’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각각 12%, 13% 증가했다.

기습 방문을 받은 BBQ 흥대입구역점도 비명을 지르고 있다. 2025년 7월에 오픈한 약 40평 규모의 이 매장은 외국인 관광객과 2030 세대가 몰리는 흥대 메인 상권 1층에 위치해 평소에도 매출이 높은 핵심 점포다.

황 CEO 방문 이후 그가 남긴 사인과 앉았던 자리를 인증하려는 발길이 물리면서, 금·토·일 주말 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20% 이상 추가 상승했다.

황 CEO의 치킨 사랑은 주말 프로야구 경기장으로도 이어졌다.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시구 행사 현장에서는 BB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서울 마포구 흥대 인근의 한 고깃집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이른바 ‘삼소(삼겹살·소주) 회동’ 도중 시민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뉴시스

Q의 ‘크런치 순살크래커’ 113박스가 단체 주문됐다. 크런치 순살크래커는 닭다리살에 오레가노 풍미를 더하고 빵가루 크럼을 입혀 튀겨낸 인기 순살 메뉴다.

이 대량 주문은 황 CEO를 비롯해 경기에 초청된 엔비디아코리아 직원 및 가족들이 경기 관람 중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잠실야구장은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홈구장으로, BBQ는 지난 2019년 입점해 현재 구장 내에서 총 4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방한 당시 황 CEO가 방문했던 간부치킨이 가맹점 전체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본 데 이어, 올해는 미국·중국·일본 등 전 세계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BBQ가 배턴을 이어받았다”며 “글로벌 AI 거물과 국내 최고 경영진이 치맥을 즐기는 장면은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 K-푸드의 대중성과 상징성을 전 세계에 타전하는 최고의 광고 파급력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